



학회장: Hyeyoung Lim
(임혜영)

Dep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AL 35294
hyeyoung@uab.edu

부학회장: Kyung-Shick Choi
(최경식)
Cybercrime & Cybersecurity
Boston University
Boston, MA 02215
kuung@bu.edu

총무: Hyesun Kim
(김혜선)
Dept. Criminal Justice
Worcester State University
Worcester, MA 01602
hkim3@worchester.edu

회계: Chunrye Kim
(김춘례)
Dept. of Sociology &
Criminal Justice
Saint Joseph's University
Philadelphia, PA 19131
ckim@sju.edu

뉴스레터 편집장: Heeuk D. Lee
(이희욱)
Dept. of Criminal Justice
Weber State University, UT
84408
heeuklee@weber.edu

Inside this Issue:

학회장 인사말	1
KOSCA Exec. 보고	4
학술분과 보고	5
조교수 세 가지 교훈	19
특별기획	17
학교소개	21
공지사항	30

Ctrl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 소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Editor's Summary / 학회장 인사말

Editor's Summary

- KOSCA Organizational Chart
- Executive Committee 보고
- 학술분과 보고
- KOSCA 학생분과
- 2022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보고
-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 조교수 첫 해로부터 세 가지 교훈
- 특별기획 [1]: Interview with Dr. Robert Agnew
- 학교소개: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 공지사항

학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제7대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장 임혜영입니다.

2023 계묘년 흑토끼 해를 맞이하여, 학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난 2022 임인년 동안, 학회는 **"Together for A Better**

Inclusive Society"라는 모토하에, 활발한 대외활동과 반아시안 혐오범죄 예방을 미국내 형사사법기관, 한국의 형사사법 및 범죄예방 관련 학회, 그리고 미국내 한인 시민단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향후 협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내 한인범죄학회를 좀 더 알리고, 학회원들의 활동과 연구, 그리고 한인사회내의 사회적 문제와 범죄예방을 함께 고민해 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난 애틀란타에서 열린 2022년 KOSCA 정기미팅과 리셉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학회원 여러분들과 행사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임원진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옛부터, 내실을 강화한다는 말로 정본청원(正本淸源)이라는 말을 써 왔습니다.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정화한다는 한자성어인데, 저는 이 한자성어를 조금 바꾸어 정본광원(正本光源)으로 올 한해 계획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COVID-19 팬데믹과 반아시안 혐오범죄의 급증이라는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우리 학회도 많은 대외활동을 추구하며,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이에 올 한해는, **"Strengthen and Brighten KOSCA"**라는 모토 하에, 학회의 내실을 강화하고 학술단체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Continued on page 2)

학회장 인사말

이를 위해, 학회는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던 학회 활동들을 상/후반기로 나누어 다채로운 학술행사뿐 아니라,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ACJS) 정기미팅에서도 학회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 3월, 매릴랜드 National Harbor에서 열리는 ACJS 연례학술대회에 참가하시는 학회원 여러분들께서는 3월17일 금요일 오전 9:30 – 10:45 에 열리는 KOSCA Business Meeting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미팅 동안, Focus Group Discussion의 형식으로 반아시안 혐오범죄에 관한 향후 연구계획과 예방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는 한국내, 자매학회들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상하반기에 적어도 한 번 이상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대외협력위원장이신 이재승 교수님께서 연초부터 관련학회들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 많은 학회원분들께서, 발표자/토론자/참여자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의 위상은 학회원들에게서 비롯되고, 그 시작은 회원수입니다. 수정된 학회칙에 의하면 학회의 멤버쉽은 매년 1월1일 또는 가입일에 시작해서 12월31일을 기해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 있는 한인학회이다 보니, 그 멤버수에 제한이 따르지만, 기존 회원들의 재가입도 학회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환이니, 적극적으로 학회가입/재가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된 학회칙에는 학회가 Koreans, Korean-Americans, 또는 한국관련 형사사법/범죄학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니 국적에 상관없이 한인/한국 범죄학/형사사법 연구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학회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는 반아시안 혐오범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으로 2년에 걸쳐 반아시안 혐오범죄관련 연구를 지원할 수 있었고, 학회의 이름으로 Race and Justice: An International Journal에 "Anti-Asian Racism & Violence"라는 주제로 특별호를 출판하였습니다 (see RAJ Special Issue: Anti-Asian Racism & Violence, 2023, 13(1); <https://journals.sagepub.com/toc/RAJ/current>). 또한, 학회 지원으로 수행된 네 편의 연구들이 현재 진행/발표/출간되었고, 올해도 연구지원금이 확정이 되면, 공모를 통해 최소 2편의 반아시안 혐오범죄 관련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주제 연구에 관해 학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내실을 강화시키는 일환으로 올 11월 정기미팅과 리셉션은 회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회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연구를 논의하는, 그리고 학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만들 예정입니다. 11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학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위원장이신 이한나래 교수님께서 학술분과장님들과 함께 패널주제를 잡고 전체 회원들께 공지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Continued on page 3)

학회장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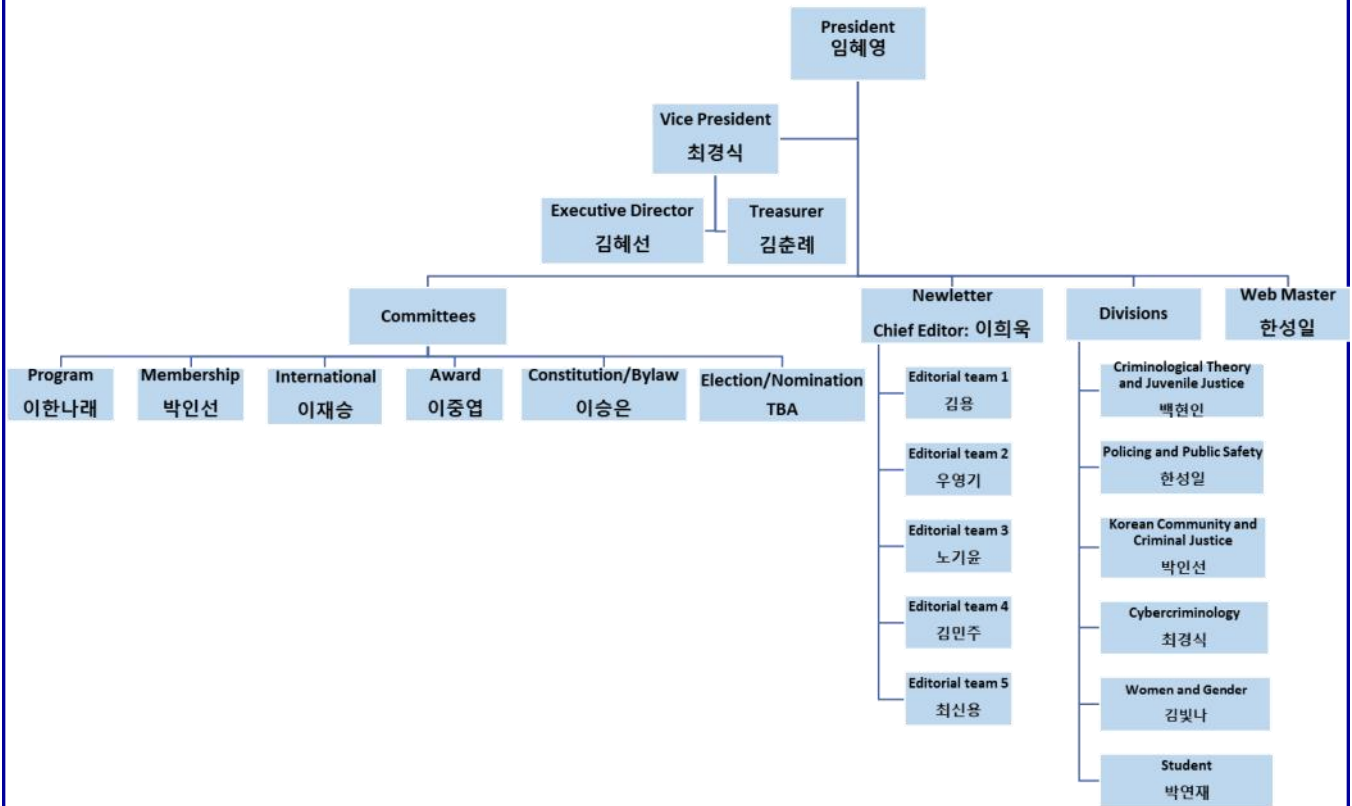
토끼는 큰 귀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고, 앞에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2023년에도 제7대 회장단과 임원진들은 여러분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학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회의 운영과 역량강화에 귀견이나 제안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7대 학회장
임혜영 배상

KOSCA Organizational Chart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Organizational Chart



KOSCA Executive Committee 보고**Program Committee**

지난 2022년 11월에 애틀란타에서 열린 ASC에서 우리 학회는 Together for Better Inclusive Society라는 주제로 KOSCA 연례미팅 및 리셉션을 KOSCA 임원진, 회원, 조지아수사국,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 그리고 조지아 범죄예방 위원회를 초청하여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코스카 산하 여러 학술분과들과 함께 총 8개의 패널을 구성하여 다양한 학술 토론의 장을 열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ACJS 개최지인 매릴랜드 내셔널 하버 및 ASC개최지인 필라델피아에서 뵙길 바라겠습니다.

International Committee

대외협력위원회는 하반기에 한국경찰학회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10월에 한국의 4개 학회들(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셉테드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과의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Award Committee

지난 하반기에는 학술상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세분의 심사위원들이 특별공로상, 우수학술상, 그리고 우수학생논문상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고, 11월 정기회의때 시상을 진행했습니다. Young Scholar 어워드 부문은 코스카 회원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상반기에는 재미동포재단 사업지원금 결정여부에 따라, 3월중순경 혐오범죄 연구과제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술분과 보고

Division of Cybercriminology

지난 2022년 상반기에 이어 우리 사이버범죄학 학술분과위원장과 회원분들께서는 다양한 행사와 연구에 참여한 바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이버범죄 학술분과위원장이신 최경식 교수님께서 다시 한 번 피로써 미국 법무부 산하 청소년 사법 및 비행예방 사무소 (US Department of Justice's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학술 그랜트를 받으셨습니다. 총 \$437,500 달러를 지원 받은 이번 그랜트는 보스턴 대학의 CIC 프로그램, ATII (Anti-human Trafficking Intelligence Initiative), 샌안토니오의 텍사스 대학교와 웨드스트에드간의 협력으로 이루어 졌으며 아동 대상 온라인 범죄, 성매매, 암호 화폐 및 다크웹 관련 경찰 수사를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양성을 위한 그랜트로서 법 집행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IoT암호화폐 및 다크웹 관련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추적 조사 기법을 도입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사이버범죄 학술분과위원장이신 최경식 교수님께서 독일 한노버에서 개최된 2022 German Prevention Congress in Hannover와 싱가포르대학이 주최한 2022 Crime & Security Forum에서 현재 연구 중이신 Metaverse & Online Sex Crime Against Children 연구를 발표하시며 각 나라 석학들과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온라인 아동 성범죄에 관해 심도깊은 학술 교류 및 토론의 장을 가지셨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 애틀란타에 열린 ASC 컨퍼런스에서는 저희 학술분과회원분이신 백신철 교수님과 마이클 토로 학생과 함께 Cybercrime Investigation: OSINT (Open Source Intelligence Techniques)로 ASC Pre-Workshop을 성공적으로 치루셨습니다.

우리 사이버 범죄학 학술 분과에서는 이번 ASC기간동안 The Digital Underground Business and Online Safety 와 Technology-Facilitated Crimes Against Children이라는 주제로 두개의 패널을 주최해 성황리에 회원님들과 사이버범죄 학자 및 현직에서 재직중이신 많은 분들과 학술교류를 마쳤습니다.

또한 우리 학술 분과 교수님들은 사이버 범죄 뿐만아니라 한국인 범죄학자로서 아시안 관련 혐오범죄 연구에도 의의를 둔 바 위원장이신 최경식 교수님을 주축으로 이승은 교수님, 이한나래 교수님, 박인선 교수님과 주한 미 경찰 단체인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KALEO)회장이신 벤 박님을 초청해 아시안 대상 반 혐오 범죄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모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는 저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와 함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논의하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분과장 최경식 교수 (kuung@bu.edu)나 멤버관리 회원 이한나래 교수 (h2lee@bridgew.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분과 보고

Division of Police and Public Safety

Police and Public Safety분과에서는 지난해 분과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학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ASC Annual conference에서 두 가지 패널세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Hate Crime Against Asian-Americans and Policing 과 Policing in Asia 세션에서 총 10개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이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KOSCA 회원 뿐 아니라 범죄학 분야에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발표세션을 진행 하였습니다. 또한 분과회원들과 미팅을 통해 올 한해 진행해야 할 공동 프로젝트를 발의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Policing and Public Safety 분과에서는 경찰과 치안 관련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많은 KOSCA 회원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활발한 연구 참여 및 학술교류를 원하시는 KOSCA회원분들은 한성일 교수 (shan27@uncc.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Women & Gender Division (WGD)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해 다양한 주제의 webinar를 개최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봄학기 첫 개강 모임이 2월 18일 virtual meeting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개강 모임에서는 이번 학기에 진행될 세미나/연구 모임의 주제를 결정하고, 다가오는 ASC 학회에서 발표할 WGD 패널 세션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함께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WGD에 관심있는 분들은 Chair (김빛나, bitna.kim@shsu.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우리 분과는 11월 ASC에서 Contemporary Issues Involving Asian 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ASC 내의 다른 아시안 학자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협력관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아틀란타 및 근교 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경찰의 정당성 인식 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문의 및 가입신청은 박인선 교수 (ipark@uakron.edu)로 부탁드립니다.

Division of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분과는 지속적으로 분과의 재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채영주 교수 (Southeastern Louisiana University)께서 분과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분과는 2022년 학술 활동을 통해 분과 회원 간의 공동연구를 출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통해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했습니다. 본 분과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백현인 교수 (h0baek01@nmsu.edu)로 문의 및 가입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KOSCA Student Division 학생분과

KOSCA Student Division 정기모임

학생분과장: 박연재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박연재입니다. 2022년 11월 17일 Atlanta에서 열린 ASC Annual Meeting에서 진행된 Student Division 정기모임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학생분과는 SUNY Brockport의 김문선 교수님을 모시고 'Guidance and Advice for Academic Job Search'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인 강연 들려주신 김문선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자리하시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주신 여러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강의 요약입니다.



Guidance and Advice for Academic Job Search

1. Timeline

보통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Job posting이 올라오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원이 마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timeline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Basics

지원에 필요한 서류는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CV
- Cover Letter
- Letter of Recommendation
- Research Statement
- Teaching Statement (Teaching Philosophy)
- Diversity Statement
- Writing Sample
- Teaching Evaluation, Sample Syllabi
- Transcripts

(Continued on page 9)

KOSCA Student Division 학생분과

3. Know Your Lifestyle

학교를 선택할 때에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search school을 지원한다면 research burden과 personal life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Teaching school을 지원하는 경우, Teaching load (e.g., 4:4, 5:5)가 부담이 되지 않는지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학교가 추구하는 바와 나의 fit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학교의 위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하는 학교에 오래 머무를 것인지 혹은 다른 학교로의 도약 계기로 삼을 것인지도 학교를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CV (Curriculum Vitae)

CV를 작성하고 나면, CV가 search committee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를 생각하며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job position에 맞는 CV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Job Announcement에 특정한 specialty area/interests가 명시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작성할 수 있고, research school인지 teaching school인지에 따라 CV를 구성하는 섹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search school을 지원한다면 가르친 course를 명시한 섹션 앞에 publication 섹션을 두어 CV를 customize 할 수 있습니다.

Area of Interests (주요 관심/연구분야) 의 경우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가르친 과목 혹은 가르칠 수 있는 과목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Teaching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teaching assistant 과목을 강조할 수 있지만, 박사 과정 중에 최소한 한 학기는 teaching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ublication의 경우 하나라도 있는 것이 좋고, 다른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research burden을 이겨낼 수 있는 지원자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나 학과에 대한 기여도를 가늠하는 항목으로서 Service 섹션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학생회 활동이나 KOSCA 활동 등이 Service 섹션이 기입될 수 있습니다. Grants & Funds 섹션에는 최종적으로 탈락한 unfunded grant 프로젝트도 적는 것이 좋은데, funding 신청 프로세스를 알고 앞으로도 그랜트를 할 수 있는 지원자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Application

지원자들이 의외로 흔하게 하는 실수 중 하나는 application process를 완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 후에는 Confirmation mail이 왔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Letter of Recommendation (LOR)의 경우 지원자와의 관계, 지원자의 장점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좋기 때문에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LOR을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OR을 요구하기 이전에 Reference list만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보통 reference check은 campus visit/interview 전후로 진행되는데, 이에 대해서 추천인과 미리 arrange하여 추천인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상황은 double check해보는 것이 좋고, committee chair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Position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ontinued on page 10)

KOSCA Student Division 학생분과

6. Interview

인터뷰 과정에서 지원자는 편안하게 보이되 professional해야 합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은 당연히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원한 position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 학교의 curriculum, 교수진의 research interests, 최근에 주최한 행사, 학교의 위치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자로서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인터뷰 중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는 아는 척하기 보다는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좀 더 알아보겠다 혹은 앞으로 어떠한 action을 취하겠다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Campus Visit

Campus Visit/Interview은 교수진, Dean, Provost 등과의 개별 면담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정권자인 Dean과의 면담에서는 학생 수를 늘리는 방안 (e.g., certificate program 제안), 다른 교수진과의 협업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의 면담에서 할 질문들 역시 충분히 준비하여 position에 대한 나의 관심을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이 학교를 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학교는 몇가지 점에서 다른 학교와 차별성이 있고 나와 잘 맞을 것 같아 지원하게 되었다' 등 지원동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job opening이 있어서 지원했다거나 teaching load가 낮아서 지원했다는 등의 대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지 강조해야 합니다. 이 학과에 어떠한 advantage를 가져다줄 수 있는지, teaching 이외의 것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 학과의 커리큘럼에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다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Campus Visit에서는 무엇보다 자신감 있으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보여 자신의 collegiality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자 역시 나와 같이 일할 동료를 찾는 과정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지원한 학교 교수진의 collegiality를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Campus Visit에서는 개별 면담뿐만 아니라 research presentation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연구들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을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본인의 전문분야를 준비하는 것이 좋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보여주는 future agenda 등으로 마무리합니다. Teaching presentation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학교는 presentation의 내용보다는 수업을 어떻게 manage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Presentation은 간단한 자기 소개로 시작하며, 학생들에게 몇 학년인지 등을 질문하여 audience를 파악하고 눈높이에 맞는 teaching을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수업에 일찍 들어가게 된다면 학생들과 rapport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본 수업 초반에는 Overview를 해주고, 끝나기 전에 내용을 wrap up하여 마무리합니다. 수업 중에는 학생들과 eye contact하며 수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던질 간단한 질문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합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을 수업 주제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12)

KOSCA Student Division 학생분과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follow-up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earch committee도 지원자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Campus Visit 이후에는 각각의 교수진과 나눴던 대화 내용에 따라 customize하여 감사이메일 (thank you note)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8. Job Offer를 받은 이후

Job offer negotiation 과정에서는 salary 이외에 자신의 학교 활동에 필요한 기타 자원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오피스에 필요한 컴퓨터, 연구에 필요한 software 등에 대한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minimum 액수를 기준으로 \$5,000에서 \$10,000까지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Offer를 accept하게 되었다면 잡인터뷰를 했던 다른 학교들에게 자신이 더 이상 Job market에 없다는 것을 update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편집부: 최신용

재미한인범죄학회는 지난 2022년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제77회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ASC) 학회 기간 동안 정기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모임은 많은 학회원분들과 귀빈들의 참석과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아래는 금번 KOSCA 정기모임 및 학회 행사들에 관한 보고사항들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 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 (GBI) 투어

지난 2022년 11월 16일 재미한인범죄학회는 GBI 본사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GBI 국장의 (Michael Register) 환영사로 시작된 투어는 본사내의 다양한 과학수사연구소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2. 학회 정기모임

학회의 주요 행사인 학회 정기모임이 2022년 11월 18일 목요일에 Atlanta Marriott Marquis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자리에는 애틀랜타 박윤주 총영사, 조지아범죄예방위원회 운영진, GBI John Melvin 부국장, 형사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 Korean American Law Enforcement Organization (KALEO) President Ben Park, ASC President 등 여러 단체 및 귀빈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 7대 학회장님(임혜영)의 인사말과 애틀랜타 총영사님의 축사를 시작으로 여러 단체 및 귀빈 소개, 업무/활동 보고, 및 공로상 수상 등 다양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Continued on page 14)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Continued on page 15)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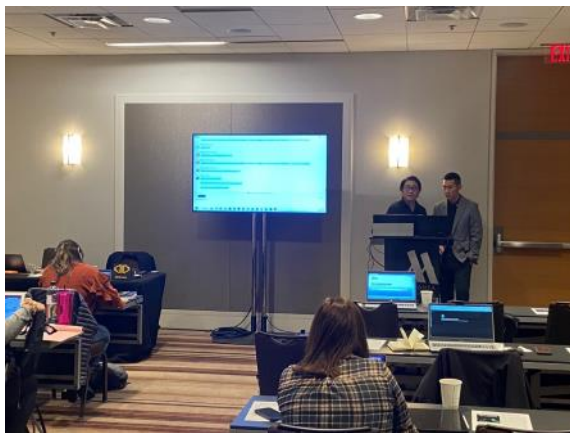
(Continued on page 16)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3. KOSCA 패널 세션

2022년 ASC에서는 KOSCA가 주축이 되어 총 8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오범죄 3개, 아동대상범죄 2개, 성범죄 1개, 범죄 수사 1개, 사이버범죄 1개). 특히, 목요일에 진행된 Hate Crime Panel에는 조우영 영사 (애틀랜타총영사관), 이초원 이사 (조지아범죄예방위원회), Ben Park 회장 (KALEO), 박연재 연구원 (KOSCA) 께서 참석하여 각각 민간범죄예방단체, 한/미 경찰, 학생을 대표하여 아시아 증오범죄와 관련된 이슈와 관점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ontinued on page 17)

재미한인범죄학회 정기총회 및 행사 결과 보고

성범죄 주제로는 Stalking Research: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romises 세션이 열렸고 스토킹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범죄 수사 주제로 진행된 Policing in Asia 세션에서는 여러 아시아 국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션은 ACCCJ와 Division of Interpersonal Criminology와 협업하여 진행되어 더욱 뜻 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범죄 주제로 진행된 The Digital Underground Business and Online Safety 세션에서는 다크 웹, 불법온라인도박, 랜섬웨어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이슈들을 다룬 연구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세션은 Division of Cybercrime과 함께 주최하여 더욱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학술상 수상자 인터뷰: 남용재 박사님

1. 먼저 학술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명망 높은 상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예로운 학술상을 받는 일은 매우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이 상을 수상한 의미는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경찰학계에 공헌할만한 주제가 생길 때마다 심층적으로 연구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며 학문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더욱 정진하여 받은 이 상이 무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주요 관심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경찰조직이 법집행기관으로써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경찰 신뢰와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 관계 속에서 절차적 공정성, 분배적 공정성, 경찰효과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과 관련된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 전체의 안전과 치안이라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하여 최근 조직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주목하고 있는 조직공정성을 측정하고 그 영향 정도를 검증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들이 조직 내에서 인식하고 있는 공정성 수준은 자신들의 동기부여 및 직무수행 태도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직공정성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현재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나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해 주신다면?

경찰은 국가조직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하나로 사회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뛰어난 인재의 채용과 더불어 교육훈련을 통해 우수한 경찰관을 양성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고 가치관과 태도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경찰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경찰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훈련들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인식이 교육 중인 시점과 이후 시점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4. 끝으로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한 조언을 해 주신다면?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다보면 시간이 흐르고 나의 위치와 상황도 변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좋은 연구를 하고 있나라고 자신에게 질문했을때 그렇다고 생각되면 계속 진행하면 되고 뭔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때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신입교수로써 더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교수 첫 해로부터 세 가지 교훈

편집부: 노기윤

2019년 가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의 짧은 조교수 생활을 마치고 한국의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미국에서의 대학원 생활을 마치고 조교수를 시작하려는 동료, 후배 여러분들께 감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동안 경험하고 느꼈던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박사과정을 마치고 조교수로서 새로운 직장에서의 시작은 설렘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료들을 만날지, 어떤 학생들을 만날지, 어떤 수업들을 맡을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들을 가지고 새로운 먼 직장으로서의 이사도 준비해야 하겠지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에피소드들은 훗날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 굴곡들을 경험하고 극복해내는 자신들을 살펴볼 시간이 왔을 때 '아 내가 교수가 되었구나' 라고 비로소 느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학계에서 일을 하시는 동안에도 다양한 어려움들은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와중에 박사과정 중 제 멘토이셨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지금 현재 너의 생활이 어쩌면 네 인생에서 가장 덜 바쁘고 여유로운 시기일 수 있다. 앞으로의 생활은 갈수록 지금보다 바쁘고 타이트할 수 있다." 당시에 저는 저 말이 와 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사과정을 마치고 첫 직장에서 조교수로서 첫 해를 보내면서 저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동감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부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께, 그리고 곧 박사과정을 마치고 조교수 포지션에 지원을하실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글은 The Criminology 뉴스레터 43권 5호의 글을 참고하였음을 알립니다.

박사 과정으로부터 첫 직장으로써 학계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는 것과 관계없이 새로운 직업에는 늘 학습 곡선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박사과정 동안 하나 또는 두개의 수업을 가르치는 것에서 조교수가 되면 3-3 또는 4-4의 수업 분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연구 과제와 새로운 장소에서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학생회 활동을 돕고, 첫 해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전에는 결코 해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대학 시민"이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Continued on page 20)

Tips for Teaching Undergraduate Courses

대학원 시절과 비교하면 책임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교수로서의 첫 해는 도전적이고 끊임없이 적응하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기술은 수업에서 또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개발될 수 없지만, 저는 제 여정을 더 쉽게 만들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멘토들을 기억하세요. 멘토들은 우리가 대학원 과정(그리고 그 이상)을 통과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헌신이 있기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멘토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학원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는 실무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는 부분적으로 대학원 기간 동안 멘토로부터 "배운" 것에서 파생되며, 여러분으로 우리는 존경하는 사람들을 모방하게 됩니다. 그러니 귀를 기울이세요. 멘토들이 학과 내에서 직업적이고 때로는 개인적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직위는 대학원생 때는 다루지 않았던 새롭고 복잡한 대화와 상황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가 유사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참고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직업적 및 개인적 실수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멘토를 찾아보세요. 짧은 기간에 멘토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요령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대학은 다르며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특히 적어도 한 명의 선임 동료를 파악하는 것은 항상 유익합니다. 이 과정은 다소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항상 형식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경험이 있고 시간을 내어 여러분을 가르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뿐만 아니라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을 관찰하고 경



청하여 이러한 멘토를 선택하세요. 학과 내의 작은 행동들, 특히 더 작은 행동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멘토링 스타일의 조합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훌륭한 동료가 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의 일부는 단순히 "모방"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모든 것을 알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당신이 모르는 것을 정확히 예상할 수도 없으므로 물어보세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일찍 질문하는 것이 항상 더 낫기 때문에 일찍 질문하세요. 새 직장에서 멘토를 찾으면 누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캠퍼스 전체에서 다른 누군가와 연결을 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교직원은 실제로 대학을 운영하고 모든 기관에서 가장 귀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훌륭한 멘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알아가십시오. 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직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항상 좋은 생각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친구들을 기억하세요. 선행연구들은 학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스트레스 수준과 그것이

(Continued on page 21)

Tips for Teaching Undergraduate Courses

우리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Levecque, Anseel, Beuckelaer, Van der Heyden, & Gisle, 2017). 첫 해는 스트레스가 매우 많을 수 있습니다. 저의 멘토들은 새로운 위치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그룹 또는 친구들을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항상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새로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학과의 다른 신입 교수진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같은 학과의 오랜 교수진보다 다른 학과의 새로운 교수진과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더라도 시도하세요. 제 경우에는 시간적 어려움과 학과 간의 물리적 거리로 인해 함께 모이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연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공유할 사람을 찾는 것은 이러한 경험들을 경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새로운 직책을 맡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달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 친구 그룹, 특히 대학원 친구 그룹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함으로써 처음 몇 달 동안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대학원 시절 평생 친구를 사귀게 되어 매우 운이 좋았습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일이 바쁘고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때에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친구들이 같은 전환기를 겪고 있을 때 더욱 도움이 됩니다. 모든 대학과 직책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공통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과 도전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세요. 그룹 채팅 또는 게시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답을 함께 찾고 있는 강력한 그룹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선행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지원 그룹이 중요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hao, 2011). 지난 1년 동안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적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문제를 처리하고 새로운 직책의 외로움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우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를 결속시켰습니다.

셋째, 현재를 즐기세요. 당신이 얻은 것을 즐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학원은 어렵습니다. 새로운 직장의 첫 해는 어렵습니다. 연구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하며 더 높은 강의시수를 해야 하는 새로운 스트레스는 실제로 당신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러한 감정과 씨름하고 일에 몰두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기는 너무 쉽습니다. 이러한 감정에 저항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성취한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경험에 감사해보세요. 첫 해를 즐기십시오. 새로운 도시를 경험하세요. 직장 밖에서 숨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시오. 간단해 보이지만 중요합니다. 이 1년 동안의 전환 기간 동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향후 몇 년을 구성하는 방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JUST
ENJOY
WHERE
YOU
ARE
NOW

(Continued on page 22)

Tips for Teaching Undergraduate Courses

이 세 가지 팁들은 획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도 학업 생활의 대부분 동안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들에 대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멘토들은 단순히 글 쓰는 방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세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정기적으로 만나는 신입 교수진 그룹들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한 동료로 갖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오랜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십시오. 우리 시대에 거리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이미 확립된 사회적 지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을 즐기십시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다음 원고에 대해 걱정하거나 해당 논문의 채점에 대해 걱정하기 때문에 인생의 환상적인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편안히 앉아 숨을 쉬고 성취한 것을 즐기십시오. 여러분들은 해냈습니다.

References

Chao, R. C. L. (2011). Managing stress and maintaining well-being: Social support, problem focused coping, and avoidant coping.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3), 338-348.

Levecque, K., Anseel, F., De Beuckelaer, A., Van der Heyden, J., & Gisle, L. (2017). Work organization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PhD students. *Research Policy, 46*(4), 868-879.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Robert Agnew

노명훈 교수

KOSCA 뉴스레터에서는 Research, Teaching, Service 등에 있어서
각 학교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육철학과 인생철학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OSCA 회원으로써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교수님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 편집장 이희욱 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교수: heeuklee@weber.edu).

Interview with Dr. Robert Agnew**Dr. Robert Agnew**

Ph.D. Sociology,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1980)

Current/Past Positions:

1980-2021: Assistant Professor to Professor of Sociology, Emory University

2013-2014: Past-President,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2012-2013: President,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2011-2012: President-Elect,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

**Research Interests:**

Criminology, Juvenile Delinquency

Biography:

Professor Agnew's primary research and teaching interests are criminology and juvenile delinquency, especially criminological theory. He is well known for his development of general strain theory and was elected a Fellow of the American Society of Criminology.[4] He has served on the editorial boards of *Criminolog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Journal of Theoretical and Philosophical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Social Forces*, *Theoretical Criminology*, *Turkish Journal of Criminology*, and *Youth & Society*.

(Continued on page 24)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Robert Agnew

Who has most influenced your work?

My work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many scholars over the years; I focus here on a few key influences in my early years. I was a sociology major as a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 and Emile Durkheim was the scholar who most influenced my interest in the effect of the social environment on behavior. Durkheim begins each of his books with a key question or puzzle (e.g., how can we explain the rate of suicide in a society?); he then surveys the existing answers to this question. Many are quite plausible, but Durkheim convincingly demonstrates that they are all problematic. Durkheim then presents his own answer to the question; often pointing to features of the social environment that I had not considered. Reading Durkheim was like reading a great detective novel; he showed me how exciting (and important) sociology could be, increased my awareness of the social forces that affect us, and demonstrated that these forces affect even seemingly private/individual behaviors like suicide.

Another major influence was Robert Merton. Not only was he responsible for the development of strain theory in contemporary criminology, but his brief article on "Social Structure and Anomie" is extraordinarily well written; challenges the biological theories that were popular at the time; makes a compelling case for importance of economic strain in certain societies; and advances arguments that are creative and non-intuitive (he does *not* simply argue that poverty or lack of opportunity causes crime). Further, he demonstrates the power of a few simple ideas (e.g., his typology of the modes of adaptation). Yet another influence was Albert Cohen. His book, *Delinquent Boys*, provides a wonderful extension of Merton's strain theory, combining it with Sutherland's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And, in doing so, I think he provides the best account of the origin of delinquent subcultures, as well pointing to a major factor shaping the effect of strain on crime. My own work likewise explores the links between strain and other theories. I was also drawn to the fact that Cohen drew heavily on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s when developing his work, and I likewise try to draw on the experiences and accounts of adolescents, especially as described in qualitative studies. Finally, I would list two prominent control theorists as major influences: Travis Hirschi and Ruth Kornhauser. I was convinced of the utility of the classic strain theories before reading *Causes of Delinquency* and *Social Sources of Delinquency*, but was then confronted by their devastating critiques. I agree with many of the points they make. In fact, when reading Kornhauser's discussion of strain theory, I often said to myself: "Why didn't I think of that?" Hirschi and Kornhauser motivated me to think much more carefully about strain theory, and helped m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most potent sources of strain do *not* involve the inability to achieve future goals, like monetary success or middle class status, but more immediate problems – many of which are described in the stress research in psychology and sociology.

(Continued on page 25)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Robert Agnew**How are you able to publish so many articles?**

I was not always a prolific author. In fact, during the first part of my career, there were years when I struggled to publish one or two articles. I think the key to my success is that I did not give up (although I thought about it on occasion) and I tried to learn from my mistakes. My early articles were too long, overly complicated, and not well framed. But I received good feedback and I continued to revise my work. Some articles underwent multiple revisions and were submitted to many publications before they were eventually accepted. This is actually the case with the paper on general strain theory that was eventually published in the journal *Criminology* in 1992. Earlier versions of that paper were rejected by several journals. Also, I studied the work of more successful scholars. For example, Frank Cullen is exceptionally well skilled at framing articles. He begins each paper with a question or issue that readers find compelling and important, and he ends the paper by highlighting the major contribution his paper makes in answering that question. After reading one of his papers, you cannot help but conclude that it deserves publication. Also, as time went on, my knowledge of the literature, data sets, and research techniques increased, so less background work was required when writing a paper. Relatedly, my research increasingly focused on general strain theory, an area with which I am of course well acquainted. So, it took many years before I became a productive researcher.

Do you ever get writer's block?

Yes, there are days and sometimes weeks when I hit a block while working on a paper. Rather than struggle at the computer screen, I take a break and do something else – maybe a long walk or bike ride or work on administrative/teaching tasks. I find this helps a lot, increasing my motivation and suggesting new approaches to the paper.

How many different research projects do you tend to work on at one time?

I like to limit myself to one major project at a time. The project tends to consume me. Even when I'm not working on it, it's at the back of my mind and I'll find myself thinking about it when engaged in other activities. In fact, working on a paper is a lot like having a rather intense, extended conversation with myself. I make certain arguments, find problems with them, propose alternatives, etc. I think working on a second project at the same time as the first would be too much of a distraction – like holding two serious conversations at once.

How many pages do you tend to write per day?

Not many, particularly when working on the introductory portions of a paper, where I frame my research,

(Continued on page 26)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Robert Agnew

and on the theoretical sections. I may spend several days working on a few paragraphs here, revising and extending them each morning. Once I clearly identify the research question/issue, establish its importance, and settle on a theoretical approach, the rest of the papers flows more easily and I might write as many as two to three pages in a day.

Are you a generalist?

I think that in certain senses I am a generalist. While I am best known for my work on general strain theory, I also embrace and have done research on a range of theories. One major book project, *Why Do Criminals Offend?*, developed an integrated theory of crime that draws on all of the major theories. Another book project, *Toward A Unified Criminology*, attempts to provide the groundwork for merging conflict and mainstream theories of crime. And, while I trained as a sociologist and take a sociological approach to crime, I have tried to acquaint myself with and draw on a range of psychological research in my work.

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for you?

I have now been retired for five years now, so my typical research year looks quite different than it did earlier in my career. I still do crime research, but at a very relaxed pace, spending perhaps one to two hours a day working on a new theory of crime – one that I have now been working on for about three years! Before retirement, I'd spend several hours each day on research, usually in the morning. I prefer the morning hours because they're quiet, I'm well rested, my mind is fresh, and it seems to be my most productive time. In the afternoon, I'd focus on other tasks, such as preparing lectures and administrative duties. During the first part of my career, I aimed for at least two articles each year in well-respected journals, roughly the minimum necessary to get tenure in the department where I was located. And I tried to ensure that at least a few of the articles I published before tenure were in top ranked journals. As I advanced in my career, I was increasingly asked to contribute chapters to volumes – often summarizing general strain theory. Such chapters were easier to write since they did not involve original research and were on topics with which I was well acquainted. Also, original research became easier to produce, especially research in the area of general strain theory. I was familiar with the literature, had a good sense of the data sets that were available, and much experience constructing measures in the area. Also, my prior work on strain theory suggested topics for further research. Beyond that, years of practice and reading had made it much easier to write research reports. But I did not want to limit my research to general strain theory, and I have produced much work in other areas – including work on other theories of crime, including integrated theories, work on agency and crime, work focusing on the impact of particular variables on crime, such as age and gender, etc. This other work helped keep criminology interesting; it would have gotten rather boring if my work

(Continued on page 27)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Robert Agnew

consisted solely of incremental contributions to general strain theory. Also, my ultimate goal is to develop a general/integrated theory of crime. I've never thought that general strain theory is the only valid theory of crime, and I very much embrace the ideas of most other crime theories. The work I've done outside general strain theory has helped lay the groundwork for the general theory that I am working on now.

What would you advise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s?

Let me pass on a few pieces of advice that have served me well. First, develop strong foundational skills; that is, develop those core skills that are necessary to critically read and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in criminology. So, for example, even though you may not think of yourself as a theorist or statistician, take courses in and keep up with the literature in these areas. And, as suggested above, spend time working on your writing skills – perhaps even take a course or workshop in the area.

Second, read those relevant literatures outside your area, perhaps even take one or a few courses in sociology, psychology, biology, economics, political science, history, etc. Doing so will provide a stronger foundation for your work and suggest topics for research. My own work in general strain theory is very much informed by the sociological and psychological research on stress, coping, emotions, justice, etc.

Third, do not be afraid to draw on your own experiences and those of others when reading and contributing to the literature. I tell my students that, when reading the literature, they should always ask themselves questions like: Does this make sense to me? Does it jibe with my own experiences and those of others around me? Does anything seem to be missing from this account or analysis? Your own experiences are of course limited, something you should always keep in mind. But you can extend your experiences by reading qualitative accounts of crime (and you can of course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producing such accounts). Third, allow yourself some time away from work, despite the great pressure you may feel to produce. Your work will be better if you are rested and have devoted some time to the other things that are important in life, like family, friends, and larger social issues that are of concern to you. Also, you'll find that some of your most creative ideas come to you during your non-work hours.

Finally, create a support network; that is, a group of colleagues willing to provide honest, but supportive feedback on your work; career advice; and socioemotional support when needed. That said, best of luck as you pursue your careers.

(Continued on page 28)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Robert Agnew



노명훈 교수 Salve Regina University
(myunghoon.roh@salve.edu)

인터뷰 관련 안내사항

2022년 12월, 노명훈 교수 (Salve Regina University) 가 Robert Agnew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질문양식과 내용은 이전 Newsletter와 마찬가지로 Robert Worley (2011) What makes them tick: Lessons on high productivity from leading 21 century academic sta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Vol 22 (1), 130-149 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소개: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학교소개: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앨라배마 대학교 버밍햄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임혜영입니다. 이번 호에 저희 학교와 학과를 재미한인범죄 학회 Newsletter인 The Korean Criminologists를 통해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The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UAB) is one of three autonomous universities (Birmingham, Huntsville, and Tuscaloosa) within the University of Alabama System. UAB is a comprehensive urban university with a nationally recognized academic health center and is the only public, four-year degree-granting university in the state's largest metropolitan area. UAB is the largest research institution (over 22,000 students from more than 110 countries) and the largest single employer (over 26,000 employees) in the state of Alabama. Since UAB became the first Alabama university to achieve "Research University I" status in the Carnegie Foundation classification in 1994, UAB annually generates approximately \$7.15 billion in economic impact within the state, and UAB faculty, staff, and students generate more than \$80.5 million in community impact through donations and volunteer time to local nonprofits. UAB was ranked among the top 8% of universities worldwide in the U.S. News & World Report 2022-2023 "Best Global Universities" list and was recognized as the 2022 Diversity Champion and Higher Education Excellence in Diversity Award recipient by INSIGHT Into Diversity magazine (see more at <https://www.uab.edu/didyouknow/>).

(Continued on page 30)

학교소개: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The J. Frank Barefield, Jr.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UAB is a world-renowned institution offering more than 120 areas of study across 12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s/colleges. The J. Frank Barefield, Jr.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is housed in the College of Arts and Sciences. The Department offers a BS in Criminal Justice, BS in Digital Forensics, MS in Criminal Justice, MS in Cyber Security, MS in Forensic Science, MS in Criminal Justice/Public Administration, and a Pre-law program for undergraduate students and a Graduate Certificate in Computer Forensics (for more information, see <https://www.uab.edu/cas/criminaljustice/>). We have a total of 15 full-time faculty members (12 tenured and tenure-track faculty and three non-tenure-track teaching faculty), 6 instructors, 3 affiliated faculty, 4 Emeritus faculty, and multiple adjunct faculty members. The department is affiliated with UAB's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UAB's Computer Forensics Lab. The department offers various scholarships and assistantships (e.g., Graduate Research/Teaching Assistantships, Undergraduate and Graduate Workstudy).



Criminal Justice Program

The MSCJ program offers two tracks:

A **Thesis Track** designed to prepare students for doctoral-level training in criminology, criminal justice, or a related field. Students complete a thesis project under faculty guidance (30 credit hours).

An **Applied Track** geared toward working professionals, designed to provid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This coursework-only track is offered both on campus and online (33 credit hours).

The MSCJ program also offers:

A graduate certificate in Computer Forensics, providing the tools necessary to identify, and appropriately respond to, cyber attacks on local- and wide-area networks.

An accelerated Bachelor's/Master's program for exceptional criminal justice students to earn their MSCJ faster, by counting up to 12 credit hours towards both the BSCJ and MSCJ degrees.

A joint MSCJ/MPA degree, providing a solid foundation in criminal justice and the skills needed to become an effective supervisor or manager.

(Continued on page 31)

학교소개: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Admissions:

- Application Deadlines: July 1 (Fall semester) and November 1 (Spring semester)
- Application Information (<https://www.uab.edu/cas/criminaljustice/graduate/mscj/admissions>):
- UAB Graduate School Application for admission (<https://cloud.reach.uab.edu/graduate-application>)
- Payment of application fee
- Transcripts from all post-secondary institutions
- Requirements:
 - Evidence of a Bachelor's degree
 - 3.0 grade point average (on a 4.0 scale)
 - Three letters of recommendation
 - A statement of purpose
 - Completion of an intro-level social science statistics and research methods courses
 - International Students (TOEFL and TWE are required)

Forensic Science Program

The MS in Forensic Science program is one of fewer than 30 MSFS programs in the U.S. accredited by the Forensic Science Education Programs Accreditation Commission (FSEPA). The program prepares students for careers in various forensic science and conventional analytical laboratories and for building a strong foundation for doctoral and professional studies. The program maintains a close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DNA profiling laboratories of the Alabama Department of Forensic Sciences and hosts the editorial offices of the *Forensic Science Review* (the only review journal in forensic science).

Admissions:

- Application Deadlines: January 31 (Fall), but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through June 30 until the maximum enrollment is reached
- Requirements:
 - Background requirements – a bachelor's or master's degree in chemistry or biology from an accredited institution; BS in forensics should come from a FEPAC-accredited program
 - 3.0 grade point average (on a 4.0 scale)
 - GRE scores in the 50th percentile or above
 - A personal statement
 - Three letters of recommendation (at least one should be from a professor)

(Continued on page 32)

학교소개: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Cyber Security Program

The MS in Cyber Security program is an interdisciplinary professional/practice graduate program intended to develop skills, crucial for competitiveness and success in the areas of computer forensic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nd forensic accounting. In January 2023, Fortune ranked our program as the No. 1 in-person master's program in cybersecurity in the country. The program also offers CYBERCORPS Scholarship for Service.

Admissions:

- Application Deadlines: June 1 (Fall), November 1 (Spring), March 1 (Summer)
- Requirements:
- Background requirements – criminal justice, computer science,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ing,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business, accounting, and other science and social science fields (if not met, will be admitted on a contingency basis and be required to take a series of prerequisite courses)
- 3.0 grade point average (on a 4.0 scale)

Go Blazers!!!

저희 학과 석사과정 프로그램 초점을 맞춰 UAB와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를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학교 마스코트 블레이저 (개인애칭: 녹색용용이) 입니다. 미국내, 용 (Dragon)이 마스코트인 대학은 UAB를 포함해 8군데 입니다. 그 중에 녹색용은 UAB가 유일합니다. 녹색이 봄,

(Continued on page 33)

학교소개: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생명, 동쪽, 희망, 승리 등을 뜻해서 그런지, 저도 이 학교에서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얻었습니다. 교수로서 재학중인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고, 그 길을 보여주고 이끌어 주고, 문을 열어 줄 수 있는 스승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물론, 저는 그러한 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만,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기회를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UAB가 하나의 선택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학과 교수진들의 연구분야와 최근 출판물들의 학과 홈페이지 Faculty Directory (<https://www.uab.edu/cas/criminaljustice/people/faculty-directory>)에 가면 교수진들의 프로필과 CV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Birmingham, Alabama가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버밍햄은 앨라배마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2022 World Game을 주최했고, 미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버밍햄에 위치한 UAB에 오셔서, Southern Hospitality를 경험해 보시고, 학문적 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나 학과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임혜영 (Hyeyoung Lim, Ph.D.)

hyeyoung@uab.edu



Advertisement: SCJA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2023 Annual Meeting****September 13-16, 2023****Doing High-Quality Research in a Time of Ethical Challenges**

R
RENAISSANCE[®]
THE BATTLE HOUSE HOTEL & SPA
MOBILE

Dr. Kent Kerley, President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krkerley@uab.edu

Dr. Ráchael Powers, VP and Program Chair

University of South Florida

powersr@usf.edu

Still basking in the glow of our Golden Anniversary in 2022, we are headed to Mobile, Alabama in 2023. From Hurricane Katrina to the Deepwater Horizon oil spill, to economic recession, Mobile has shown great resiliency in the face of hardship. Our conference hotel, built in 1852, is the third iteration of this property as the first succumbed to a flood and the second to a fire. The hotel and 100+ surrounding restaurants, bars, and shops serve as exemplars of how dedicated residents from diverse backgrounds can work together to create a vibrant community. According to Visit Mobile, Mobile is a "cultural center of the Gulf Coast and an authentic experience like nowhere else in the southern United States." Indeed, you will find many cultural and recreational activities in the area, including the Mobile Museum of Art, Dora Franklin Finley African-American Heritage Trail, USS Alabama Battleship Memorial Park, Bellingrath Gardens, and many walking tours of the area. Mobile is also home to the original Mardi Gras and some amazing cuisine, especially seafood and barbeque. I will stop there with all of the things to do in Mobile because we still want you to attend the amazing panels and special events that we have planned.

Online submissions may be emailed to scja2023@gmail.com beginning on March 15, 2023 and are due no later than June 15, 2023.

공지사항: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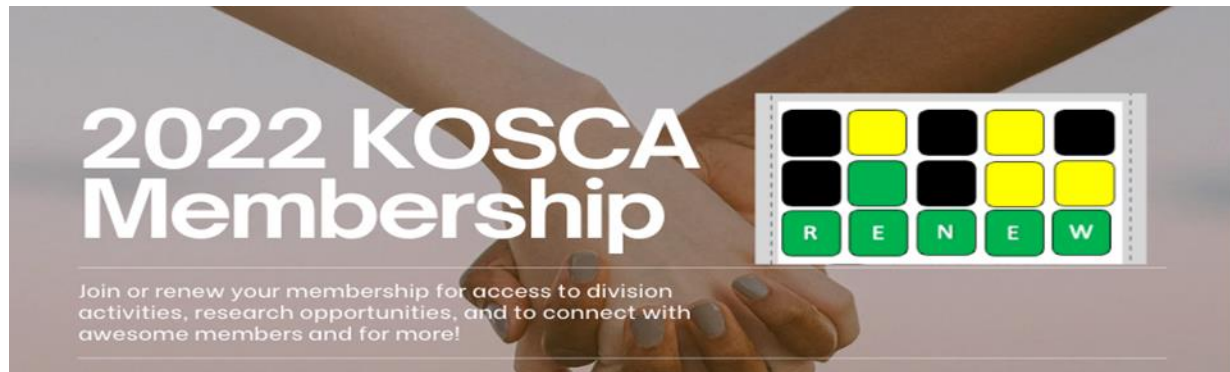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범죄학자는 KOSCA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 ([양식다운로드](#)-클릭)를 작성하셔서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교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원께서는 신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영전 및 교수직 임용 등) 회원신청서를 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회원서를 보내실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입회원서와 C.V.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박인선 교수 (University of Akron) ipark@uakron.edu



공지사항: KOSCA Membership 안내



2022년부터 멤버십 기간이 calendar year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멤버십 페이지에서 "Join KOSCA"를 클릭하신 후 해당하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KOSCA Membership

Registration

Membership Registration

- ✓ New Registration
- Renew Membership
- Information Update

기존 회원 분들도 소속/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Information update" 를 선택하여 최신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학회 소식 전달에 도움이 됩니다. 회비 납부는 온라인 결제 Zelle - kosca2020@gmail.com / Paypal - chun-rye@gmail.com 또는 check/money order 발송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ctive Member (정회원) - \$20

Student Member (학생회원) - \$10

Lifetime Member (평생회원) - \$300

** Paypal이나 신용카드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되도록이면 Zelle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Check/money order 보내실 곳:

Dr. Chunrye Kim (Treasurer) ckim@sju.edu

Sociology and Criminal Justice Department

Saint Joseph's University

5600 City Ave. Post Hall 133

Philadelphia, PA 19131

공지사항: KOSCA 공식 Facebook page 안내

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KOSCA 공식 Facebook page 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페이지 주소로 바로 접속하시거나 (<https://www.facebook.com/KOSCA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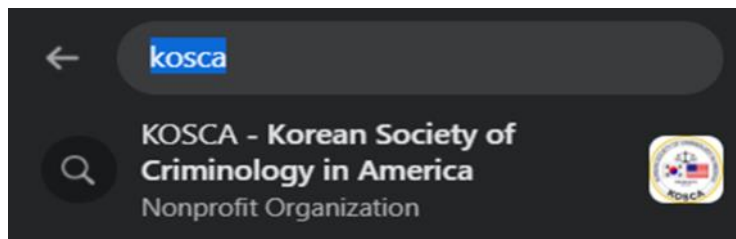
Google 검색:

<https://www.facebook.com> > ... > Nonprofit Organization

KOSCA -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 - Facebook

Call for papers! Criminology & Public Policy is looking for research around the topic of "Place, Crime, and Race" for a 2022 Special Issue.

또는 Facebook 내에서 KOSC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vent, Publication, Awards 등 학회 및 회원 소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Follow" 하시면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홍보/공유하고자 하는 내용 있으시면 메신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Newsletter 회원투고 안내

뉴스레터 편집위원회에서는 'The Korean Criminologist' 을 위해 회원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글은 회원 상호간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형식 및 내용

특정한 형식 혹은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편하게 작성 (예: 수필 형식, 사진 첨부 가능)

- 최근 본인의 근황 (수기), 학교 및 학과 소개, KOSCA 발전을 위한 제언
- 최근 연구결과물의 소개, 교수법 소개, 직장 구하는 방법 및 인터뷰 요령 등

2. 원고 접수 기간 및 보내실 곳

- 원고 접수 기간 : 상시
- 보내실 곳: 뉴스레터 편집위원장 이희욱 교수 (E-mail: heeuklee@weber.edu)

3.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소식

- 영전, 승진 등의 인사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교내 및 외부 grant 기회, 각종 시상, 책출판을 하신 회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회원 인사 동정'을 통해 함께 축하 드립니다.

형식: (1) Grant - 연구기간, PI 또는 Co-PI 유무, Grant 지원 Institution, Title, Funding Amount
 (2) 시상 또는 Nomination 등 - 일자, 내용, Agency
 (3) 저자, 책제목, 출판일, 출판사 (APA Style)
 (4) 초청강연—발표자, 제목, 발표일자, 발표장소

참조: 회원 영전과 인사이동에 관한 소식은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 교수 (Email: ipark@uakron.edu)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의 책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간략한 책 소개와 표지 사진을 첨부하여 뉴스레터 편집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he Korean Criminologist

Official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Vol. 13, No. 1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870 Broadway Street

Lowell, MA 01854

ISSN 2169-9924 (Print)

ISSN 2169-9040 (Online)

President: Hyeyoung Lim (임혜영)

E-mail: hyeyoung@uab.edu

Chief Editor: Heeuk Dennis Lee (이희욱)

E-mail: heeuklee@weber.edu

Managing Editor: David Yong Kim (김용)

E-mail: dyk1@iu.edu

Editorial Team: Youngki Woo (우영기: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Keeyoon Noh (노기윤: University of Ulsan)

Minju Kim (김민주: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Sinyong Choi (최신용: Kennesaw State University)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